

특별기획

정읍시 단풍시즌 관광가이드 교육

정읍시가 11일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 관광가이드 교육을 가졌다.

시는 "보격적인 단풍시즌을 앞두고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들 중 엄선해서 선발한 법인과 개인택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행동요청연구소의 파트너 코치인 유경진씨가 강사로 나서 '내가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주제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주제로 강의했고, 김용원 정읍문화원 사무국장이 정읍문화원과 정읍 문화제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국립공원 내장산 단풍터널과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등의 정읍 9경을 탐방함으로써 지역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문석준 정읍시 개인택시단위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관광 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다시 찾고 싶은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경찰서, 시의회와 치안설명회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0일 정읍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안설명회에서는 4대약 근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읍경찰서의 활동사항을 시작으로 농촌마을 노후화 CCTV 교체,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노인 여성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에 대해 노후화되거나 허소 수가 낮은 CCTV의 교체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퇴색 및 마모된 차선 등 도색을 설치 확대하고,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치안협력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원 서장은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건실한 치안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교월동, 사회보장협 월례회의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태환, 민간위원장 박경준)는 지난 7일 교월동 주민센터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 긴급구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내용 ▲ 지역특화사업 세부 추진 논의 ▲ 지역지원 발굴 및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민관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후원금을 받아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방문상담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1세대(부부장애인)를 선정하여 이번 달 말에 협의체 위원들과 복지봉사, 복지기동대 등 관내 사회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 도배 장판 교체, 전기수리, 청소 및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준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신속히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세창스틸과 대유글로벌, 허림 등 전북도 내 소재 우수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2016 정읍 GRAND 취업박람회'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정읍 GRAND 취업박람회 열려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16개 기업 116명 신규 채용 예정

(주)세창스틸과 (주)대유글로벌, (주)허림 등 전북도 내 소재 우수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2016 정읍 GRAND 취업박람회'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총 16개 기업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11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정읍을 대표하는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여 서류전형에서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관을 중심으로 취업 컨설팅관과 취업 지원관, 부대행사관 등이 운영된다. 특히 컨설팅관에서는 자문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특별상담관이 운영되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

게 맞춤형 일자리를 상담으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여성 구인·구직 컨설팅, 장애인 취업컨설팅, 창업 컨설팅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관 이미지 메이킹관, 전문직성검사관 등이 운영되며 온라인 입사지원을 위한 인터넷 활용관과 문서지원관 등이 운영된다.

또 정읍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선호도 검사관과 구직활동 확인관 취업 성공패키지사업 홍보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를 방문하면 취업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정읍 GRAND 취업박람회의 공식홈페이지(http://open.jobkorea.co.kr)를 통해 오프라인 16개 기업 및 온라인 참가기업 15개 총 31개 기업의 채용이 진행된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GRAND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 직장을 구하고 기업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람회 관련 문의는 박람회 사무국(063-280-4774)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군정 주요시책, 주민 80%가 '만족'

주민소득 증대 정책·교육복지 정책 지표 지속 상승

부안군이 소통·공감·동행에 통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10명 중 8명은 부안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부안군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는 77.54점으로 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14년도 68.54점 대비 9점, 생활환경 만족도는 73.28점으로 2014년 67.86점 대비 5.42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소득 증대정책·인구 늘리기·귀농귀촌·교육복지·관광개발 정책 등 5개 분야 주요 시책사업 대한 만족도와 대중교통·상하수도·도로정비·재난행정 등 생활환경 만족도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 중 6차 산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정책, 귀농귀촌과 나눔마당농장화재단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 등은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했으나 관광개발 정책 분야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균형 개발

요구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교육복지 정책·귀농귀촌정책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등을 강화해 군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밀착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관광개발 정책 분야는 군민과 정책토론회 시행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균형있는 관광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승복 김제부시장, 예산확보 총력

김제육교재가설 등 국회 요청

이승복 김제부시장은 국회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10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회, 국회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여 2017년도 국가예산 및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국가예산을 요청한 주요사업으로는 민간육교연구단지 준공을 앞두고 종자기업에 대한 교부가가치 산업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공동활용 종자기공처리센터 구축사업'과 종자수출 2억달러 달성의 전진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국제종자산업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국비 증액 등이다. 또한 안전성 E급 노후교량으로 붕

괴 위험성이 산존하고 있는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201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 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담보상태에 있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이 올해 내에 조속히 예타가 통과되어 내년 국비확보로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제시는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전북도내 의원 및 보좌관들을 방문 접촉과 시장현안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김제 현안 및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 시 국가 예산이 반영 및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녹차를 포함한 모든 차(茶)류가 한자리에 선보여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내장산문화관광청 옆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린다.

정읍 자생차(茶) 페스티벌 개최

29~30일 내장산문화관광청 옆 체험교육관에서

정읍녹차를 포함한 모든 차(茶)류가 한자리에 선보여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내장산문화관광청 옆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린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정읍 자생차(茶) 페스티벌이 열린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정읍 자생차(茶) 페스티벌이 열린다.

시는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 자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물론 소비자와 차 생산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 차(茶)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동국여지승람(1530년)에 따르면 지방 토산품으로 진상되거나 약제로 활용돼 왔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입암면 천원다원(川原茶園)이 조성됐고, 이곳에서 생산된 천원차(原茶)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는 정읍 자생차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차 문화·산업 육성과 발전에 나서 생산과 가공, 체험까지 이르는 6차 산업화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 Beer.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beer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Gangsan Beer', and '부안강산맥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Experience the taste of mulberry wine with Gangsan Beer).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